

경기

경기중기지원센터, '2003 중소·벤처 박람회' 5월중 개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대표 한정길)가 오는 5월중 "2003 중소·벤처박람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이번이 6회째인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여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비롯해 ▲대기업·유통업체와 중소·벤처기업과의 만남의 장 ▲투자설명회 ▲취업박람회 ▲주한 상무관 초청 간담회 ▲지식산업포럼 ▲지방벤처기업연합 전진대회 ▲교포 경제무역인 방문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구·경북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인연합회 출범

대구경북지역 첨단 벤처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인연합회(가칭)'가 결성된다. 지난달 31일 지역 벤처업계에 따르면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와 아이티커뮤니티 등 벤처관련 기관들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인연합회 발기인 대회를 갖고 이달 중순께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합회 결성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침체돼 있

는 지역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권용범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장은 "지역의 첨단벤처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결성,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한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지역 첨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벤처·기술 우수 중기에 40억원 지원

충북도는 특허 등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술 우수 중소기업체에 전국 최저금리 수준인 연 이율 3%짜리 특별 지원금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허나 실용신안, NT마크나 KT마크 등을 획득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우량 중소기업 지정 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신청은 15일 까지도 기업지원과(043-220~3263)로 하면 된다.

광주

광주시, 태양에너지산업 육성 본격 나서

광주시에 태양에너지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광주시는 태양에너지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솔라시티 광주(Solar City Gwangju)'를 건설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조례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의 태양에너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태양에너지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짓는 공공건물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 및 새로 창업한 업체에 대한 부지제공과 자금 및 설비투자 지원책도 마련하는 등 태양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태양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20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솔라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